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악마주의(Diabolism) 표현

한지민 · 유영선*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The Diabolism Expression in Fashion Illustration

Ji Min Han · Young Sun Yoo*

Dept. of Clothing & Textil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Kyung Hee University

(2003. 4. 7.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and effects of Diabolism image that appeared in fashion illustration. The concept of evil from ancient times is arranged with more basic pain, unhappiness, breakdown, fear, ignorance, sadness, imperfection, death, disease, and ugliness than it can be understandable in modern society. However, as the concept of evil is included in sacred ground of art and is begun to understand by the ugliness of broad sense, the evil and ugliness were recognized as subordinate concepts which fertilizing beauty. Also, image characteristics of Diabolism in pop culture are taking charge roles that remove visual discordance to decadent and mysterious beauty and trying to find new beauty by presentation of bad-tasted style. The aesthetic and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of Diabolism in modern visual media have something in common which is classified into five shapes: Negative image, Symbolic line and color, Transformation, Devilish shape, and Fantastic image. The Diabolism expressions in fashion illustration since 1980 show the possibility of image expression as a new technical field because they differ from existing expression methods and viewpoints of beauty. Therefore, the practical use of devilish image to express excessive aesthetic sense can expand the extent of image expression.

Key words: Fashion Illustration(패션일러스트레이션), Diabolism(악마주의), Visual Image Expression (시각적 이미지 표현방법)

I. 서 론

현대를 '이미지의 시대' 라고 일컬을 만큼 다양한 시각적 매체에 있어서 이미지는 의미 전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시각예술의 이미지는 정신의 작용에 의해서 구성되는 구체적인 표상(송영봉, 1994)을 의미하며, 작가의 표현의도를 감각적으로 호

소하기 위해 은유적으로 표현된 시각적 영상으로 나타난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패션이미지는 표현대상의 내면적 본질을 재해석한 독자적인 이미지 표현 방법을 통해 작가의 개성과 패션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한다. 특히, 현재의 유행트렌드가 반영된 패션이미지를 활용한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 표현에 관한 연구들은 시각적 차원의 기본적 표

이 논문은 2002년도 경북대학교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현요소·원리의 적용과 미술재료의 응용, 사진과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표현방법 등 기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시각적 매체를 통한 이미지의 전달이 중요시되는 현시점에서 표현기법에 의한 것보다는 표현하고자 하는 컨셉을 반영할 수 있고 현재 유행하고 있는 패션경향이 반영된 주된 이미지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연구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패션이미지는 클래식이미지, 유머이미지, 환상적이미지, 내추럴이미지, 아방가르드이미지, 심플이미지, 캐주얼이미지, 패미닌이미지로 정리(유영선, 2002)되고 있다. 이 이미지들은 과거부터 지속해 온 것들이 대부분이나, 1980년대 이후로 접어들면서 상반된 이미지의 이중적 표현, 그로테스크 이미지의 강화, 아방가르드 이미지의 강조 등 과거의 고정적 미적 관념으로는 수용하지 못했던 기이하고 추한 것에 아름다움을 발견하고자 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악마주의적 이미지로 이것은 이미 광고나 영화와 같은 영상매체에서 대중들의 관심을 끄는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된 바 있으며 최신 패션경향으로 유행과 같은 스모키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악마주의 패션'이라는 테마로 컬렉션에 등장하고 있다.

이런 악마주의적 이미지는 시각예술에서 충격적이고, 의외적 이미지를 내어 그 의미를 더욱 강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하며, 대중들의 기억에도 오래 남을 수 있게 한다. 즉, 강렬한 색채와 형·형태의 독특한 변형, 파괴적 이미지 등의 사용으로 주목성을 높여 커뮤니케이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각적 표현매체로서 악마주의적 이미지의 표현방법을 파악하고 이것이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어떠한 표현방법과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분석과 해석을 위하여 내용분석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문헌조사를 통하여 악마주의의 개념을 정리하고 미술과 대중예술에서 표현된 악마주의 이미지 표현방법을 논의 정리하여 이를 패션일러스트레이션 내용분석에 사용한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 분석에 사용되는 작품들은 1990년대 이후 발표된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작품집, 패션 잡지, 패션관련 단행본에서 시각예술의 형식을 갖추고 그려진 작품들을 발췌 사용한다.

II. 악마주의 개념과 미적 가치

1. 악마주의 개념

악마주의(Diabolism)는 19세기 말의 서유럽에서 문예와 사상의 한 경향으로 나타난 것으로서 추악함과 퇴폐적인 것, 괴이함과 전율이 느껴지는 것, 공포감 등으로 가득 찬 분위기 내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상적 경향을 말한다(두산백과사전, 1996). 즉, 모든 통속적인 도덕과 양식을 거부·반항하고 끝까지 관능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강렬한 자극을 요구하여 괴이하고 처참하고 어둡고 병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을 그 특색으로 하고 있으며 흔히 인간성을 배반하는 데에서 스릴과 쾌감을 느끼는 태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악마와 같은 강한 성격으로 긍정한다는 것이다.

고대시대부터 인식되어 온 악마와 악마주의에 대한 관점은 단순히 종교적인 관점에서 정의되었던 것이라면, 현대의 '악마주의'와 관련된 악마는 악을 행하는 사람, 뿔이 달린 흉측한 마귀 따위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을 좌절시키고 죄악시하는 모든 것에 대한 대적자(對敵者), 인간의 욕정, 탐욕, 복수와 그의 자아의 상징이며, 퇴폐적, 추함, 불건전함, 우스꽝스러움 등이 은유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의 '악마주의'의 개념을 일차원적 개념보다는 추함, 파괴, 퇴폐, 혐오, 우스꽝스러움, 쾌락 등에서 느껴지는 은유를 이용한 풍자적이며 반어적 표현으로서 크게 추, 파괴, 왜곡과 비합리성, 관능적, 퇴폐적 쾌락주의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2. 악마주의 미적 가치

악마주의 이미지는 유미주의, 상징주의, 데카당스, 아르누보의 예술경향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악마주의 미적 가치를 고찰하였다.

1) 추의 미

고대부터 최악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오던 추의 이미지는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미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를 돋보이게 하며, 미를 가일층 인상 깊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그 실현을 위한 조건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추가 미에 대해 항쟁하고 자기를 주장함으로써 그 힘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추의 적극적인 의미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전적 미학에 있어서는, 대체로 추를 미의 부정태로 용인하고 이를 취급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고전적 이상미를 미학의 중심개념으로 삼는 반면에, 추의 개념은 악과 같은 부정적인 현상을 초래하고, 따라서 이념의 순수한 현현(顯現)을 저해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의 미학에서 제기된 추에 대한 확장된 해석에는 추가 결코 미적 범주 바깥에 머물러지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미적 범주에 추를 포함시키고 있는 바, 추는 협의의 미의 가치성과 반대되는 것이지만, 광의의 미 속에 있다고 본다(김용권, 1999).

이를 통해 추악하고 퇴폐적이며 괴이한 분위기 내에서 미를 구하려고 하는 악마주의적 개념 또한 넓은 의미의 추의 개념의 일부분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2) 파괴의 개념

악마주의의 파괴의 개념은 19세기 유태주의의 개념이 그 배경이 된다. 유태주의는 프랑스에서 에드가 앨런 포의 영향을 받은 보들레르에 의해 구현되었고, 심미주의란 말로도 사용되며, 미적 가치를 가장 지고한 가치로 보고, 모든 것을 미적인 견지에서 평가하는 태도 및 세계관으로서 널리 아름다움에 대한 신앙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다른 가치들과 비교한 다던가 전혀 다른 이미지로 상치시킴으로써 아름다움의 중요성을 신봉하는 것을 의미(Johnson, 1979)한다. 유태주의의 데카당스 개념은 아름답다고 여겨지지 않는 사물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있는 것으로 써여가고 파괴된 것에서 솟아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20세기말에 가까워지면서 온갖 도덕적 기준을 혐오하고, 초속적(超俗的)이며 인공적인 미의 세계를 추구하고 또, 괴이하고 처참하며 암울하고 병적인 것을 표현함으로써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 하였다.

3) 왜곡과 비합리성의 추구

시각예술에서 왜곡과 비합리성의 추구는 세기말 예술사조인 상징주의에서 드러나고 있다. 상징주의는 인간 내면성의 강조와 비합리성의 추구가 그 미적 특성으로 회화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주제보다는 신화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해석되

어질 수 없고 단지 상상되어질 수 있는 절대상징으로서의 화면이 주 특징으로 등장하며,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형상과 색채 뒤에 다른 세계와 다른 의미체계가 있었던 것으로 회화 내에서 작가의 고백적인 측면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를 통해 상징이라는 것을 이용하면서도 인격적인 면을 동시에 드러내기도 하였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을 함께 뒤섞어 놓으며 우리들에게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이 세상에서는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온갖 인물과 사건을 제시해 주어 그림의 요소와 상징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읽어보지만, 전체로서의 의미는 거의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Lucie Smith, 1996).

신비적이며 요괴하고 그로테스크한 것, 무시무시하고 병리학적이거나 도착적인 것 등은 상징주의의 전유물이면서 동시에 병적인 낭만주의의 기본을 이루는 요소이기도하다. 이러한 상징주의의 비합리성은 세기말의 예술 양식인 아르누보 양식과도 연결되고(Lucie Smith, 1996) 현대아방가르드 예술에 이어지고 있다.

4) 관능적 이미지

악마주의로 대표되는 관능적이고 환상적 표현과 이국주의적 취향,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색조는 세기말 시대적 경향을 반영한 19세기 말의 아르누보에서 보이는 예술적 경향과 그 흐름을 같이 하는 것으로, 요정이라든가 인어·동식물의 혼성체 같은 공상적 생물과 반인 반수 등의 신비스러운 환상세계와 다소 방종한 관능적 이상화를 추구하며 이 같은 이미지를 통해 악마적으로 마술적인 유희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최유진, 1999). 또, 악마주의 이미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유태주의, 상징주의와 함께 악마주의의 아르누보적 경향은 에로티시즘, 퇴폐, 타락 등과 같은 삶의 불길한 측면들과 퇴폐미를 강렬한 자극과 관능욕으로 유도한다.

5) 퇴폐적 쾌락추구

악마주의의 퇴폐적 쾌락추구성은 회의와 번뇌를 배경으로 한 19세기의 데카당스적 사고와 관련지을 수 있다. 이는 부정적·허무주의 경향과 염세적이며 심각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그리고 더 이상의 발전의 여지가 없을 때 보이는 비정상적 감수성, 파괴성, 향락성을 뜻하기도 한다(최유진, 1999). 이런 경향들은 과거에서만 아니라 현대의 악마주의의 예

술적 개념에 아이러니컬한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즉, 암흑·불건전·황폐·변태·퇴폐 등은 심각하면서도 신비적이며 일종의 전율할 만한 심리적 쾌감을 줌과 동시에 인간성의 일면을 확대·강조하여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 세기말적 예술로서의 악마주의의 존재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악마주의적 이미지의 시각적 표현

1. 미술

악마성 자체가 예술의 영역 한 가운데를 차지하게 된 것은 19세기 초이다. 스페인의 궁중화가 프란시스코야는 말년의 《로스 카프리치오》와 《검은 그림》의 벽화에서 흉흉한 악몽과 악몽의 근원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그는 이를 통해 왕정사회에서 벌어지는 사회의 부조리와 허위, 인간의 무지와 현학의 어리석음, 야만성과 잔인함을 비판하였으며, 스스로 악마의 근원을 규정하였다. <그림 1>은 그의 작품으로 그리스 파괴의 신(神) 사투르누스가 갓난 아들의 머리와 팔을 이미 해치운 후 한쪽 팔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인데 악마적인 얼굴이 그림의 검은 톤과 어우러져서 섬뜩함을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19세기 전반, 악마성의 반사회적인 정신은 광기를 수반하면서 예술의 근원이 되었다(월간미술, 2001).

19세기말은 악마주의 상징성 자체가 예술전반의 특징적 요소 중 하나로 자리잡게 만든다. 화가들은 새로운 주관적 테마를 전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표현용어들을 창조해냈으며, 객관성에서 벗어나 이상과 본능을 통해서 의미를 끌어낼 수 있는 형태와 선, 색



<그림 1> 《사투르누스》. Francisco Goya.
고종희의 일러스트레이션 미술탐사. (2002). p.172.

채의 회화적 언어를 구사하였다. 꿈과 환상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특유의 색채기법과 악마나 지옥, 공포 등을 자연적인 신비로운 환상적 모티브로 표현하였고 연속적인 선을 사용한 강한 장식적 표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양숙희, 1993).

또한, 19세기 후반에는 여성 이미지를 기존의 것과 다르게 다룬 작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단순히 관능적인 시각의 여체로서보다는 남자에게 치사적인 힘을 가진 보편적인 타입, 즉 마돈나, 이브, 살로메, 스텝스 등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들 요부들은 종교와 기존 전통에 대한 신념을 상실한 회의와 고뇌로 가득 찬 남성의 실존상황을 지배하며 남성을 결국 파멸로 이끌어 가는 파괴적 본성의 원형인 것이다.

이와 같이 19세기 후반에 새롭게 등장한 여성 이미지를 팜프파탈(Femme Fatale)이라 부르게 되었고, 이 사악하고 파괴적인 여성은 19세기말 문화의 가장 현저한 모습 중 하나가 되었다(김경환, 1996).

중세와 근대에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던 ‘악마주의’의 의미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본래의 의미에서 좀 더 확장되어 해석된다. 이전에는 추하고, 혐오스러우며 심오한 의미의 ‘악마주의’라면 현대사회에서 말해지는 ‘악마주의’의 개념은 이전의 개념을 포함하며 그에 비해 다소 긍정적 개념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악마적 모티브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진정한 악마의 뿔과 꼬리의 형상보다는 어설픈 악마의 모습을 모방해서 표현한다든가, 풍자하여 표현함으로써 우스꽝스러운 면을 드러냄으로써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이미지에서 좀 더 자유로운 의미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그림 2>는 악마주의 이미지의 현대작품으로, 기고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도 자세히 보면 동물에 가까운 근육과 안면을 가진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내고 있으며, 어린아이와 괴물 같은 동물의 전혀 관련 없는 이미지를 함께 나타냄으로써 인간 본성에 잠재된 악하고 추한 성향을 우스꽝스럽게 풍



<그림 2> Dugald Sterner. (1998). www.showcase.com.

자적으로 표현하여 블랙 유머를 자아내고 있다.

2. 대중음악

젊은이들의 패션과 어우러지게 등장한 것이 락, 메탈이라는 새로운 음악장르인데, 메탈을 중심으로 쓰레쉬(Thrash), 블랙·데스 메탈(Black, Death Metal) 등 여러 장르가 생겨나게 되었다. 초반의 쓰레쉬 메탈이 더욱 증폭, 과격해지면서 폭력, 잔인, 어둠, 파괴, 악마, 죽음 등을 소재로 새로운 음악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음악이라고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엄청난 사운드와 폭발적인 평음, 단순 반복적인 보컬, 잔인·극악의 라이브 쇼 등은 데스 메탈 밴드에게서 걸로 보여지는 단순한 표현적인 논리이며, 죽음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철학적인 문제보다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창조의 길을 모색하는 샤머니즘이 아닌 악마주의의 표상으로 이를 더욱 극대화했다(<http://www.jungocd.co.kr>). 이런 음악들이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그 음악의 가사나, 보컬의 목소리, 멜로디와 사운드 등 모두 청각에 관련된 요소들뿐만 아니라 록과 메탈그룹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밴드 멤버들의 헤어스타일과 패션 사진 등 구체적인 이미지와 특성을 제시하는 시각적 요소들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룹 X(X-Japan)의 첫 번째 앨범재킷 <그림 3>은 앞으로 계속 등장할 비주얼 밴드의 내적 성향을 나름대로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디즘을 암시하고 있는 이 앨범 커버는 '비주얼 락'이란 것이 거리낌없는 소재와 컨셉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퇴폐적이고 기괴한 아름다움에의, 특히 시각적 갈등을 풀어



<그림 3> 《Vanishing Vision》.
X(X-Japan)그룹의 첫 번째 앨범재킷.
대중예술의 이해. p.100.

주는 역할 즉, 기존의 체제와 관념, 미의식에 대한 전복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Rock의 영역 중에서도 특히 악 자체를 사람들에게 형상화하고 숭배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 '쇼크 락'인데, 이는 헤비메탈의 한 종류로 '난폭한', '악마숭배적인', '광기 어린' 등등의 단어들로 이 음악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쇼크 락의 장르 구분은 뮤지션들이 보여주는 것으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뮤지션 엘리스 쿠퍼는 자신 스스로를 '부활한 중세 마녀'라 칭하며 공연장을 사바트(Sabat)로 만들어 버리고, 쥐나 새 같은 작은 동물들을 산 채로 이로 물어뜯거나, 교수형, 단두대에서 목을 자르는 장면, 전기 의자에서 처형하는 모습을 리얼하게 묘사함으로써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였다. 이는 동시대의 젊은이들이 가질 수 있는 기성 가치에 대한 증오나 그들이 겪는 절망을 표출하는 것이며, 악마의 이미지, 마녀의 이미지를 가지고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독교적 가치와 미학 체계를 파괴함으로써 그들의 분출구를 찾고(고규훈, 2002)있는 것이다.

이런 퇴폐적 쾌락의 추구하고, 파괴적 개념의 악마주의적 이미지를 이용함으로써 젊은이들은 권위에 저항하고 질서를 뒤집어보는 자발적 광기의 발산을 유도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악마성은 언제나 체제의 반대편에서 질서를 다시 바라보게 하며 새로운 기운을 날게 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월간미술, 2001)하기도 한다.

3. 패션디자인

패션에서 보이는 퇴폐적 특성은 자연스러운 인체에 자극적인 장식을 하거나 성적(性的)으로 노출함으로써 부자연스럽고 불건전한 양상을 보이며, 극도의 선정적인 에로틱한 이미지로 나타나게 된다.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에 뼈대, 해골 등을 표현하는 뉴로틱 패션과 스노비즘(Snobism), 섹슈얼(Sexual), 스트롱(Strong)의 일본의 3S패션(안선경, 1994)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 혐오적 특성으로는 혐오스러운 동물의 이미지나 인공적인 기계적 이미지를 현실적인 이미지와 결부시켜 아이러니를 유발하는 하이테크 문명의 맹점을 재해석하여 표현한 것과 70년대 이후 헤비메탈 그룹에서 보여주는 아웃사이더적인 인간의 본성을 그들의 패션스타일이나 메이크업을 통해 표출한 것이 그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주로

비주얼 이미지로 표현되는데 악마, 해골, 피, 십자가, 죽음 등 극도의 공포감을 주는 파격적이고 괴기스러운 것을 등장시킴으로 악마성을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악마성은 드라큘라, 마녀, 해골, 악의 전사 등의 모티프와 색상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고, 부자연스럽고 비인간적인 세기말적 현상을 고발하고 인간존재에 대한 참뜻을 찾고자 하는 의미로 분석되고 있다.(선정희 외, 2001)

1990년대 이후에도 아름다움에 대한 의복의 기존 고정관념을 깨는 반(反)패션, 안티패션의 형태들이 나타남으로써 그로테스크하며 충격적이며 퇴폐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패션에 나타나는 그로테스크는 왜곡이나 과장, 혐오스러운 이미지의 도입, 의외성, 초인간적인 이미지의 도입 등으로 표현된다. 이는 데페스테(Detester)라는 패션테마로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악취미적인 스타일의 표현으로 제시되고 있다. 20세기말, ‘드라큘라 패션’, ‘악마주의 패션’이 그로테스크한 경향으로 표현되어 비정상적이고 부조화적이며 혐오스런 패션으로 나타난 것이 그 예이다.

악마주의 패션작품들은 원색의 의상과 메이크업을 통해 야생동물의 이미지를 적용함으로써 초인간적이며 충격적인 악마적 이미지를 전해주기도 하며, <그림 4>와 같이 깨끗한 천사의 이미지를 타락한 퇴폐적인 이미지로 전환시켜 표현함으로써 악마주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4> Vogue Italia. (2002). 626.

4. 광고

시각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대중들의 요구도 다양해짐에 따라 시각적 메시지를 강화하는 충격적인 기법

과 소재들을 도입한 악마주의적 경향의 광고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광고에서의 이러한 악마주의적 경향은 소비자들의 기억에 오래 남게 하는 효과를 준다.

사람들이 충격적인 광고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베네통의 광고 캠페인이다. 그들만의 독창적인 색채와 충격적이고 전혀 아름답지 않은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아냄으로써 <그림 5>, 기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광고에 대한 새로운 영역을 펼쳐 보였다. 이러한 광고로 사회적 이슈를 내세운 베네통 광고는 세계인들의 머리 속에 강력한 이미지를 심어 놓았다. 국내에서는 수년 전에 ‘잠뱅이’ 청바지가 처음 등장했을 때 「숙제시리즈 광고」와 「인스턴트 시리즈의 광고」로 기존의 다른 브랜드의 의류광고와 충격적 비주얼로서 차별화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이들 광고는 청소년들의 임신과 낙태, 탈선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되었는데 이는 그 당시 큰 사회적 논란과 비판거리가 되었다.



<그림 5> Bosnia Soldier. (1994). www.benetton.com

‘베네통’ 광고와 ‘잠뱅이’ 광고 둘 다 제품을 뛰어넘어 어떤 상징적 이념을 담고 있는 광고를 했으며, 광고자체에서는 전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이 기분이 섬뜩해지거나 약간의 혐오감을 남기지만, 아름다움부터 팔아야하는 패션 광고의 전형을 아름답지 않은 것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측면에서 현대의 앞서가는 광고라고 볼 수 있다. 그런 현상은 1990년대 후반, 대중문화 전반적으로 세기말 풍조가 일기 시작하면서 더욱 많이 나타났고 결코 아름답지 않을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그 안에서 새로운 면을 찾으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IV. 1990년대 이후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작품분석

앞장에서 미술, 대중음악, 패션디자이너 그리고 광고

디자인에서 다루어진 악마주의 이미지 표현방법들의 논의한 결과 악마주의의 시각적 표현방법은 부정적 이미지의 사용, 상징적 선과 색채의 사용, 형과 형태의 변형과 혼용, 악마적 형상의 활용, 환상적 이미지의 표현으로 정리되었다. 본 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패션일러스트레이션작품들을 분석하여 표현방법과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 자료는 Ruben Toledo, Botero, Francois Berthoud 등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작가 작품집과 단행본, 패션 잡지(Italy Vogue, SO-EN, Young Blood, Tank, 流行通信, New Glory Baby), 패션 관련 단행본(Belgium Fashion Design), 그 외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집(American Illustration Showcase, Art Directors Index to Illustration no.15, no.19), 패션디자이너 작품집(Galliano)과 패션 관련 사이트 등에서 발췌하여 앞서 언급한 악마주의적 미적 특징을 충족하면서 구체적인 이미지를 찾을 수 있는 작품 중 패션일러스트레이션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소화시키기 적합한 작품들을 선별하였다.

1. 부정적 이미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부정적 이미지 표현에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죽음, 고통, 악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의 주제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그 안에서 퇴폐적·혐오감·파괴적 이미지를 이끌어낸 것으로 혐오스럽고 추한 직접적인 사물이나 인물의 제시보다는, 사물이나 인물의 부분적인 면에서 혐오감, 기괴함, 소름끼치는 작용을 하는 대상이나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미적 범주에 반(反)하는 부정적인 이미



<그림 6> Olivier Theyskens. Belgian Fashion Design. (2001). p.202.

지를 유도해내는 방법들이 사용되어졌다.

<그림 6>은 컴퓨터 합성에 의한 작품으로 무수한 해골로 가득 채운 뒷 배경, 인체내부의 핏줄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인체와 절단된 팔과 다리의 표현에서 섬뜩하고 파괴적인 이미지를 준다. 작가는 이 그림을 통해 인간존재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에 대해 날카로이 느끼게 하고, 인간에 대한 불신과 절망을 내재시켜 죽음이라는 부정적인 주제에 표현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존 갈리아노의 의상디자인 작품집에서 발췌한 작품으로 검정색과 푸른색이 뒤섞인 배경은 부정적 이미지를 느끼게 하고 여성의 큰 칼라와 소매 없는 상의는 자유로운 팔의 움직임을 속박하며 그로 인한 구속감 등에서 복잡함에 쾌감을 느끼는 정신 경향인 매조키즘적 성향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7> Colin Mcdowell. (1997). Galliano. p.98.

2. 상징적 선과 색채

악마주의의 시각적 표현은 선과 색 그 자체만으로 의도된 가치를 표현할 수 없지만, 서로 다른 상징과 감정을 활용함으로써 작품의 분위기와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개인적 감정을 나타낸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상징적 선과 색의 사용은 악마적 이미지를 의도하는 거친 선이나 색이 여성인체와 관련시켜 표현함으로써 퇴폐적 이미지나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했다. <그림 8>는 여성인체의 실루엣을 검정색과 흰색의 명암대비를 통해 표현되었고, 이와 함께 자유롭게 그려진 붉은 선과 색의 부분적인 집중사용은 악마주의의 이미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검정 색과 붉은 색은 어둠과 죽음,



<그림 8> Sarah-Laure Estragnat. (2002).
Young Blood011. p. 68.



<그림 9> Pipoca *Instant Fashion*. (1998). p. 208.

공포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색상만을 사용해 사악하고 파괴적인 에로티시즘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가슴의 붉은 색의 원 모양, 붉은 색의 손톱과 입술의 표현은 퇴폐적이고 암시적인 관능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9>은 슈퍼모델 케이트 모스(Kate Moss)를 그린 그림이다. 모델의 얼굴라인과 배경그림자를 거친 선을 반복하여 지저분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역시 지저분하게 채색된 보라색과 거칠게 두드러진 광대뼈와 입은 아름다운 모델의 이미지를 추하게 보이게 하고 있다. 이것은 아름다움의 대표인 모델의 모습을 추하게 그려놓음으로서 추한 것에서 미를 찾는 현대인의 미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3. 형과 형태의 변형과 혼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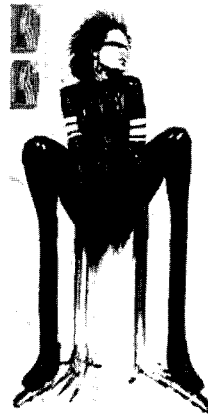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있어서 변형과 혼용은 주로

인체에서 많이 표현되는 방법이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 악마주의 이미지의 표현은 기괴하고 음산한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는 신체일부의 강조나 변형, 생략적 표현으로 나타났다.

<그림 10>은 찢기 없는 창백한 얼굴과 검은 라인만을 강조하고 눈동자를 생략한 눈은 초점 없는 시선으로 표현되어 공포감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네 명의 인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표현되어 기괴한 형상을 보여준다. <그림 11>은 팔과 다리를 확대시켜 표현한 그림으로 각진 얼굴과 뺨은 머리칼은 검은색의 가족의상과 함께 차가운 이미지를 느끼게 한다. 또한 길게 강조된 팔과 다리는 뾰족한 손톱과 날카로운 스케이트 날로 연결되어 섬뜩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10> Kaoru Takano. (2002). *流行通信*. 464, p.124.



<그림 11> SO-EN. (2002). p. 126.

4. 악마적 형상의 활용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 악마적 형상의 활용은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는 물론이며, 의복이나 신

체의 일부분에, 예를 들면 손톱이라든지 메두사를 연상시키는 헤어스타일, 동물의 뼈 모양을 혼합한 문양 등 실제 형태를 간접적인 묘사를 통해 혐오스럽고 추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즉, 기괴함과 요상함을 추구하며 해골이나 상상 속의 동물을 등장시킴으로써 직접적인 잔인한 묘사보다는 잔인한 행동을 할 여지를 보이는 식의 상징적 표현을 통해 악마의 형상을 연상하게 하고 혐오감과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느끼게 한다. 이처럼, 현실적인 이미지와 공상적인 이미지의 상호공존을 통해 자연스러운 것에서 이탈하여 인공적이며 데카당스한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그림 12>은 악마주의 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해 인체를 덩어리로 생략적으로 표현하면서 동물의 발톱형



<그림 12> Sarah-Laure Estragnat. (2002). *Young Blood 011*. p. 69.



<그림 13> Vogue Italia. (2001). 611, p. 178.

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실제적으로 악마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체의 모습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모습, 즉, 동물의 이부분과 인간의 조합으로 기괴하고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이끌어낸다. <그림 13>는 검정색 의상의 모티브로 다루어진 해골 모티브는 독극물이나 해적을 의미하는 상징물을 그대로 다룬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악마주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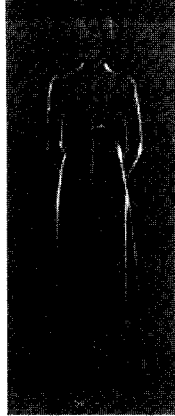
5. 환상적 이미지

환상적 이미지는 사실적 이미지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제재면에서는 신화적 괴물류, 종교적 환상, 몽상적 세계를 표현하고 기법적으로는 비사실주의적 형태, 색채 등을 주로 사용(유영선, 2000)하고 있는데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악마주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하나의 기법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사진합성에 의한 이미지 창조가 많이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작품 자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도 있는데 앞서 언급한 시각매체 중 미술분야에서 19세기 말의 문학에서 시작된 팜프파탈의 이미지가 그것이다. 여성의 흉날리는 머리카락과 작품의 배경으로 나타나 구불구불한 선의 표현, 뇌쇄적인 여성의 표정과 몸짓 등으로 다소 방종하면서 관능적인 이미지를 통해 악마적?마술적인 유혹의 세계를 환상적으로 표현한다.

<그림 14>는 퇴폐적인 분위기를 이끄는 다양한 채도의 보라색 배경에 관능적 표정의 얼굴과 포즈, 벗겨진 구두에서 퇴폐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15>은 어둡고 약간의 빛만이 존재하는



<그림 14> Violent Femmes. (2002). 流行通信. 467, p. 60.



<그림 15> Vogue Italia. (2002). 625, p.247.

곳에서 나타난 환영과 같은 인체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다. 실루엣으로 드러나는 의상 위의 붉은색 십자가의 형상은 종교적인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환상적인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작품 분석을 통하여 논의 정리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악마주의 이미지의 표현 기법과 그 효과들을 다음 <표 1>에서와 같이 정리하였다.

V. 결 론

1990년대 이후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 나타나는 악마주의적 이미지의 표현특징과 그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시대적 패션 경향이 나 그 시대적 정신과 작가정신을 인간과 밀접한 의복과 인체를 매체로 하여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도발적이고 퇴폐적인 기운을 뿜어내는 부정적 이미지의 제시는 인간생활의 모든 억압과 금기, 구속에 대한 반항과 삶에 대한 진한 애증, 괴로움과 슬픔을 표현함과 동시에 냉소적인 블랙유머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가진다.

둘째, 거칠고 과격한 선과 부조화스러운 색상의 조합 등을 통해 작가는 내면의 감춰지고 억압된 자아의 식과 비극적 상태, 현실에 대한 강한 반항의식, 강렬한 자극의 욕구를 분출할 수 있다.

셋째, 변형과 혼용 기법을 통한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이미지의 제시는 인간의 잠재의식 속의 있는 파괴 본능을 표출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무의식 속의 마음의 상처나 콤플렉스를 인체의 과격한 파괴와 변형을 통해 밖으로 발산시켜 심리적 쾌감과 조소를 통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함과 동시에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개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넷째, 1990년대 이후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있어서 보이고 있는 악마적 형상의 활용은 동물의 형상과 모티프를 도입하여 시각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자연스럽고 비인간적인 형상을 제시하여 반미(反美)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나아가 미적 관점의 폭을 확대하며,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예술영역의 현세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더 강하게 표출하고자 하는 내적인

<표 1> 1990년대 이후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악마주의 표현방법 분석결과 표

	표현기법	표현효과	심미적 특성	내적의미
부정적 이미지	악의 이미지의 비유적 표현 협오스러운 직접적 이미지 제시 연상에 의한 이미지 제시	모든 억압과 금기에 대한 반항을 상징	추의 개념 파괴의 개념	인간존재의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깨닫게 함.
상징적 선과 색채	감정이입된 선의 사용 상징적 의미가 내포된 색의 사용	내면이미지 표현의 가능성 추상적 이미지의 형상화	왜곡과 비합리성의 추구	악취미적이며 충격적 효과를 통한 시각적 긴장감
변형과 혼용	인체의 기형화, 절단 인체의 재조합 인체의 생략적 표현	작가주관적 감정에 의한 재해석 사고의 전환	왜곡과 비합리성의 추구 파괴의 개념	조소를 통한 카타르시스의 발산
악마적 형상의 활용	동물형상 도입 뼈, 해골 등의 구체적 모티프 제시	악취미적 표현	추의 개념 파괴의 개념	부자연스럽고 비인간적인 현세를 비판
환상적 이미지	비사실적 색채 Femme Fatale의 이미지 종교적 환상	현실과 비현실의 양면성을 표현 초현실적 표현	관능적 이미지 퇴폐적 쾌락추구	블랙유머

의미를 지닌다.

다섯째, 악마주의의 환상적 이미지는 최근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이미지 제시의 출현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이 환상적인 이미지의 제시를 위한 그래픽적 기법의 활용은 현실과 비현실의 공존·회화적 표현과 테크놀로지의 접목으로 모순적 이미지의 창조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악마주의의 표현은 1990년대 이후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 표현되는 다양한 패션이미지 중에서도 그 이미지를 달리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기존의 미적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서의 이미지 표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미의식의 선호와 이를 표현하기 위한 악마주의적 이미지의 활용은 패션일러스트레이터들의 이미지 표현영역의 범위를 확대시켜 작가의 내면과 개성을 간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감상자들에게도 충격적이고 의외적 이미지의 제시를 통해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으며,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패션메시지 전달목적에 효과적으로 달성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규훈. (2002). *Rock Music의 Visual power. 대중예술의 이해*. 집문당. 100-106.
- 고종희. (2002). *고종희의 일러스트레이션 미술탐사*. 생각의 나무. 172.
- 김경환. (1996). *19세기말 상징주의 회화에 나타난 팜므파탈 (Femme Fatale) 이미지*.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용권. (1999). 회화에 있어서 추에 관한 현대적 해석 연구. *한국조형교육학회 조형교육 논문집*.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1996). *두산동아*.
- 선정희, 유태순. (2001). 현대패션 및 메이크업에 표현된 데카당스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1(7). 64-68.
- 송영봉. (1994). *원색세계대백과사전* 23. 한국교육문화사. 563.
- 안선경. (1994). *현대복식에 표현된 추(醜)의 개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숙희. (1993). *유럽 상징주의 복식에 관한 연구: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의 회화세계와 레온 박스트(Leon Bakst)의 무대의상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월간미술. (2001). 중앙일보사, 5월호.
- 유영선. (2000). *1980년대 이후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시각적 이미지 표현 방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유영선, 박민여. (2002). 1980년대 이후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시각적 이미지 표현 방법 분석(제2보). *한국의류학회지*, 26(2). 187.
- 최유진. (1999). *세기말 유행경향으로 나타난 아르누보 패션*.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Kaoru Takano. (2002). *流行通信*. 東京 流行通信社, 464, 124.
- Kaoru Takano. (2002). *流行通信*. 東京 流行通信社, 467, 60.
- Dugald Stermer. (1998). http://americanshowcase.com/pages/as_branding.html
- <http://www.benetton.com/press/photogallery/1994>
- <http://www.jungocd.co.kr>
- Johnson, R. V. (1979). *Aestheticism(심미주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7.
- Luc Derycke, Sandra Van De Veire. (1999). *Belgian Fashion Design*. Ludion, 202.
- Lucie-Smith, E. (1996). *상징주의 미술*. 이대일 옮김. 열화당. 18-22, 220.
- McDOWELL, C. (1997). *Galliano*. George Weidenfeld & Nicolson L. 98.
- Pipoca Inspiration Fashion*. (1998). BIANCO & CUCCO S.r.l. 208.
- SO-EN. (2002). 文化出版局, 126.
- Vogue Italia*. (2001). The Condé Nast Publication Inc, 611, 178.
- Vogue Italia*. (2001). The Condé Nast Publication Inc, 619, 482.
- Vogue Italia*. (2002). The Condé Nast Publication Inc, 625, 247.
- Vogue Italia*. (2002). The Condé Nast Publication Inc, 626.
- Young Blood*. (2002). Jeunes Createurs, France, 011, 68-69.